'동심공작소'에서 만나는 '토이스토리' 캐릭터 인형.

동곡미술관에서 열리는 '널 위한 꼭두'전은 꼭두와 상여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다.

'널 위한 꼭두'
윤남웅·이경주 등 5명 참여
꼭두·전통상여 현대적 재해석

'동심공작소'
못난이 삼형제·토이스토리 등
추억의 장난감·인형 등 100점

'한민족의 뿌리 : 고조선부터'
고구려불상부터 조선백자까지
각 시대별 유물 200여 점 감상

동곡미술관·박물관으로 문화 나들이

지난 2020년 보문문화재단(이사장 정영헌)이 광주시 광산구에 문을 연 동곡미술관·박물관은 선조들의 얼이 담긴 의미있는 유물과 다양한 현대미술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개관 후 '동곡, 빛이 내린다', '업사이클 예술놀이', '꼭두전', '석현 박은용:전원에 산다' 등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미술애호가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에는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획전을 개최, 눈길을 끈다. 대표 소장품인 꼭두와 전통 상여를 다섯명의 작가가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변용시킨 '널 위한 꼭두'전이다.

더불어 동곡아트홀을 새롭게 오픈하고 기획전을 열고 있으며 박물관 상설전시실을 개편한 '한민족의 뿌리 : 고조선부터'전도 개최중이다.

'널 위한 꼭두'전에는 윤남웅(조각), 이경주(평면), 신창우·임용현(미디어설치), 김형숙(입체설치)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임용현 작가의 '영면소풍'은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 상여행렬을 신비롭게 표현한 미디어설치 작품이다. 죽음이라는 요소를 어둡게 묘사하기 보다는 마치 '소풍'처럼 표현한 작품으로 전시장 바닥과 벽면을 장식한 자연 풍광과 꽃과 풀들이 어우러져 평안함을 전한다.

이번 기획전의 '출발'이 됐던 이경주 작가의 작품은 민화를 바탕으로 한 익살스러운 표정과 다양한 형상의 꼭두가 어우러져 유쾌함을 전한다.

전통 민화의 책가도, 문방사우, 꽃 등을 그린 민화 위에 손수 조각한 꼭두인형을 붙여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마치 동화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준다.

윤남웅 작가가 종이·나무·흙 등 자연재료로 거칠게 만든 투박한 인형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또다른 모습이다.

신창우 작가는 전통 상여의 앞, 뒷면을 장식하는 용수판에 그려넣은 도깨비를 소재로 한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자는 화려한 영상이 쏟아지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벽면에 걸린 다양한 시계들은 시간의 흐름과 죽음과 삶에 대한 은유로 작동한다.

김형숙 작가는 전통 상여를 덮었던 지붕을 해체하고 재조립해 작품을 완성했다. 오방색 실을 수백번 감아 만든 사각틀과 붉은 천을 덧댄 나무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작품이다.

2층 동곡아트홀은 새롭게 오픈한 공간이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재미있는 근대 생활 소품들을 소개하고 소규모 기획전을 여는 전시장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에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 시절의 설렘을 선사하는 '동심공작소'전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장난감, 인형 등 100여점이 전시됐다. '재미있는 토이 월드'로 어릴 적 많은 이들의 집에 있었던 '못난이 삼형제' 인형, 건담, 스타워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캐릭터 인형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포켓몬빵 스티커 컬렉션 200여장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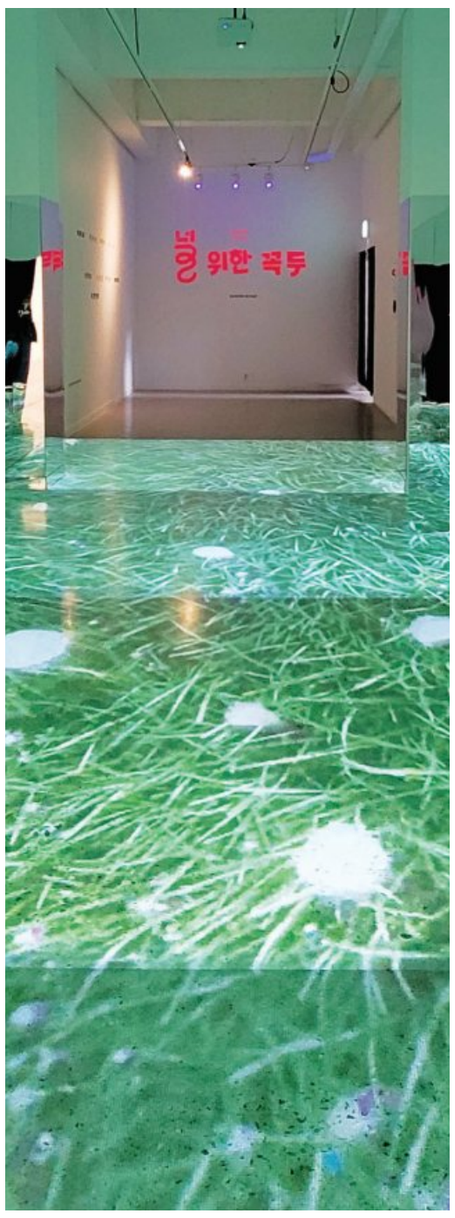
또 실제처럼 정교한 연출로 각광받는 구체 관절 인형을 만나는 초대전시도 함께 열고 있다.

3층 동곡박물관에서는 재개관 특별전 '한민족의 뿌리 : 고조선부터'를 선보인다.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유물인 청동제 방패형동기 한 쌍을 비롯해 고구려 불상과 도기, 불교미술 황금기를 이룩한 남북국시대 유물, 고려 청자와 공예품, 조선 백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다양한 유물 205점을 감상할 수 있다.

기존 전시에서 유물의 구성을 세분화해 추가했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전시 구성에 변화를 줬다.

'널 위한 꼭두'전과 '동심공작소'전은 오는 7월 17일까지, '한민족의 뿌리 : 고조선부터'전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용현 작 '영면소풍'

'감각있는 MZ세대의 선택으로'

작가·비평가 매칭 전시, 23~28일 산수미술관…아티스트 토크도

MZ세대의 작가와 비평가가 만났다.

산수미술관은 개관 초기부터 '비평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비평가와 작가가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작가와 비평가 1:1 매칭 전시 - Who is next : 감각있는 MZ세대의 선택으로'전이 23일부터 28일까지 산수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선대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는 5명의 예비 비평가가 자신들이 직접 선정한 5명의 작가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문과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기획이다. 23일 오후 5시에는 참여작가와 비평가가 참여하는 아티스트&크리틱 토크도 열린다.

윤성민 작가는 담담한 색채의 부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는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 둘 사이의 괴리감을 화폭에 담아냈다. 김경선 비평가는 시각적 화려함에 뒤처지지 않는 윤 작가의 메시지는 동시대 청년들이라면 모두 겪는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세월호 사건'을 재조명한 박성완 작가의 작품에 대해 신새별 비평가는 작가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푸른 색감과 다소 거친 필체를 통해 관람자들과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을 공유한다는 점에 관심을 갖는다.

이정은 작가는 연기(煙氣) 라는 소재를 통해 스트레스의 분출구를 이야기하며 이가현 비평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관객들과 소통 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에 주목한다.

박진솔 작가는 한지 꼴라주 기법을 이용해 내면의 '해방'을 표현하는데, 최다예 비평가는 "한겹한겹 쌓이는 한지는 생각과 고뇌에서 벗어난 작가의 무의식을 표현한다"고 평가했다. 임수범 작가는 사라져버린 풍경의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상상해 조합한다. 최수지 비평가는 기존의 풍경화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작가에 주목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수범 작 '남겨진 땅'

하늘마당에 펼쳐질 '빛의 정원'

ACC·광주시립발레단, 25~28일 특별공연

광주시립발레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손잡고 야외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 '빛의 정원 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는 25~28일 오후 8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화려한 미디어파사드가 더해진 발레공연으로 꾸며진다. 공연은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에 빠지지 않는 무도회 풍경을 모티브로 한 '봄의 소리'로 막을 올리며, 이어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4인무 무대가 펼쳐진다.

또 남성 무용수의 경쾌한 동작과 여성 무용수의 우아한 춤이 단연 돋보이는 차이코프스키의 고전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파랑새'를 선보이며 가야네의 '칼춤', 희극 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 '발푸르기스의 밤' 무대가 이어진다.

무료 공연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매(비지정석) 할 수 있다. 관람객은 야외 공연 관람을 위한 마스크와 돗자리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44.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24일 하정웅컬렉션 연계 세미나

25일 김달진 관장 초청 강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세미나와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개관 30주년 기념 하정웅컬렉션 특별전 '씨앗, 싹트다'와 연계한 세미나가 24일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다.

'미술품 컬렉터와 기증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복기 아트인컬쳐 대표와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하정웅컬렉션의 미술사적 가치와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선진국의 기증 사례 및 한국의 기증문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질의자로는 박현화 전남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장,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한다.

'씨앗, 싹트다'전에서는 하정웅 선생이 1993년 광주시립미술관에 첫 번째로 기증한 작품 212점 중 곽덕준·곽인식·문승근·송영옥·이우환·전화황 작가의 대표작품 85점을 중심으로 전시 중이다.

하정웅컬렉션의 정신과 의의, 문화적 자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메세나 정신을 살펴보는 기획으로 해외 유명 미술관의 컬렉션과 기증 사례 등 문화선진국의 현황도 살펴본다. 문의 062-613-5390.

광주시립미술관 '2022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즐거운 미술관 활용법' 두번째 강좌도 25일 오후 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미술아카이브의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자료 전문박물관인 김달진 자료박물관장을 운영하는 김달진 관장이 아카이브의 의미, 아카이브의 수집 방법, 아카이브 관련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김환기 화백이 군대에 간 제자에게 보낸 엽서, 오지호 화백의 편지 등 희귀 소장품도 소개한다.

김달진 관장

김달진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담당,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 한국큐레이터협회 부회장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홍진기 창조인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613-7131.

/김미은 기자 mekim@